

리브라의 여정과 향후 전망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금융리스크공학연구실
허우혁



목차

- 01 리브라가 걸어온 길
- 02 리브라에 대한 경계 및 고난
- 03 리브라의 대응 및 현황
- 04 리브라에 대한 향후 전망

리브라가 걸어온 길

19년 7월 16일
리브라에 대한 미국
상, 하원 청문회

19년 10월 14일
리브라 협회 공식 출범
(스위스 제네바)

19년 10월 23일
2차 미국 하원 청문회



19년 10월 4일~13일
페이팔을 필두로
주요 파트너사들이
프로젝트 탈퇴

19년 10월 22일
리브라 출시 시점 연기

2020년 9월~
리브라 출시?

19년 6월 18일

리브라 론칭 공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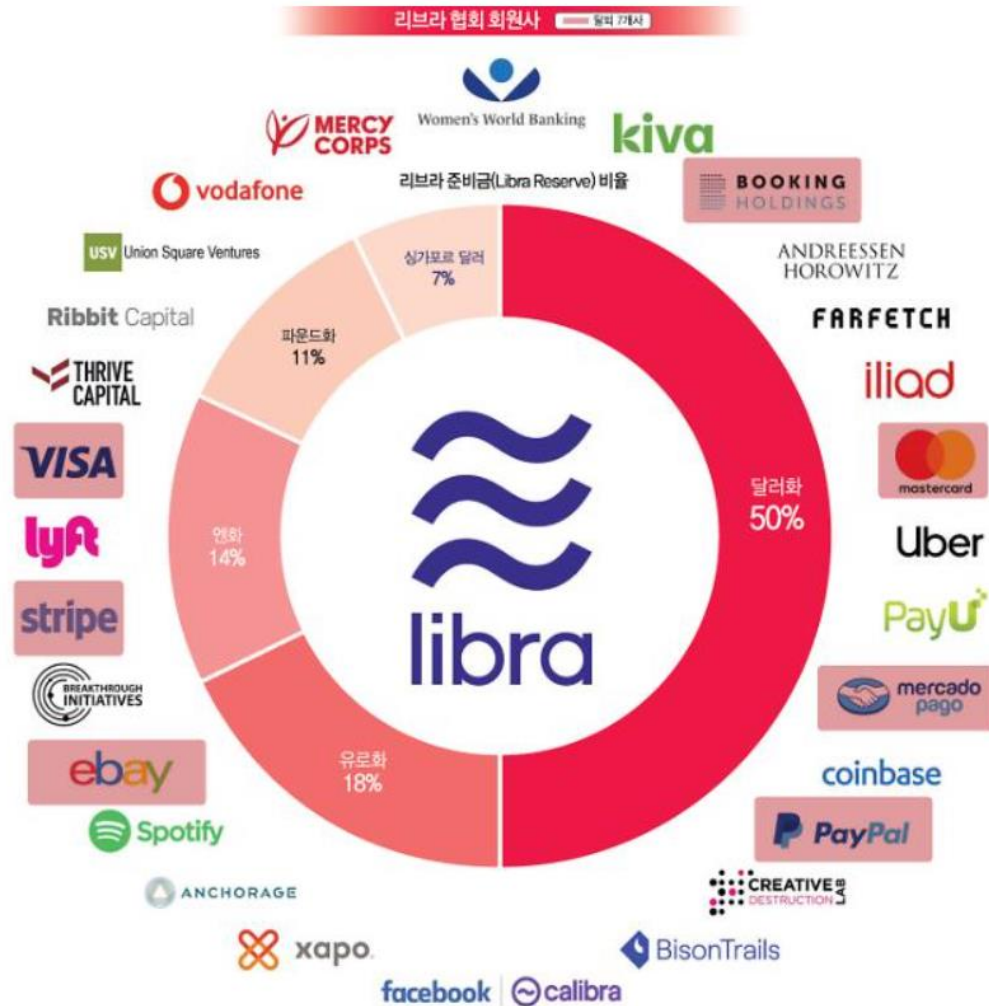
리브라에 대한 경계

- “리브라 프로젝트가 소비자, 규제 금융 기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답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샤프, 미국 민주 상원의원)
-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새로운 `세계 통화`의 출현은 막아야 한다. 통화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 (올라프 솔츠, 독일 재무장관)
- “리브라는 위상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들의 은행이 되길 바란다면 설립 허가를 받고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리브라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거래 리스크, 국가 안보,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 체계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국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 잠정 종단을 요구한다”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리브라에 대한 경계

- G20, IMF에 **글로벌 stable 코인 잠재 리스크 연구 요청**
- 요청 연구 주제로는 `글로벌 stable 코인이 IMF 회원국 화폐 주권에 끼치는 거시적 영향` 등이 있음.
- "글로벌 stable 코인은 금융 혁신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공정책, 규제 리스크 등 불안요소도 동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에 앞서 자금세탁,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 "암호 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G20의 공동 책임**이며, 기술은 항상 금융의 발전을 촉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혁신들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이익이 될 것인지는 문제다." (Christine Lagarde, IMF 총재)

리브라의 고난



[사진=아주경제DB]

Visa, Ebay, Mastercard, PayPal 등의 결제업체들이 대거 이탈

- 이는 미국과 같은 리브라에 반대하는 정부들의 압박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탈한 것으로 추정
- 미국 정부에서는 Visa, MasterCard, Strip 등의 기업에게 리브라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한다면 더 큰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서한을 보내기도 함

리브라의 고난

리브라 협회 회원사

업종	회사명	탈퇴 7개사
IT 서비스	캘리브라(페이스북),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파페치	이베이, 부킹닷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메가르도 파고
금융, 결제	페이유	
이동통신사	일리어드, 보다폰	
블록체인	앵커리지, 바이슨트레일, 코인베이스, 자포출딩스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 리빗캐피털, 트라이브캐피털, 유니온스퀘어벤처스	
학계, 비영리기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랩, 키바 마이크로펀드, 머시 콧스, 세계여성기금	

[사진=아주경제DB]

리브라의 대응



[사진=아시아경제]

- 10월 14일 리브라 협회 공식 출범. 칼리브라를 중심으로 우버, 보다폰, 코인베이스 등 21개 회원사가 주축이 되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총회 개최.
- "미국 당국 관계자들이 리브라를 규제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이 가진 영향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
- 주커버그 CEO는 9월 18~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의회와 정책 면담을 가졌으며, 10월 23일 '페이스북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리브라의 대응

HEARING BEFORE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October 23, 2019

Testimony of Mark Zuckerberg
Founder,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Facebook

I. Introduction

Chairwoman Waters, Ranking Member McHenry, and members of the Committe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testify today.

There are more than a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ho don't have access to a bank account, but could through mobile phones if the right system existed. This includes 14 million people here in the US. Being shut out of the financial system has real consequences for people's lives—and it's often the most disadvantaged people who pay the highest price.

People pay far too high a cost—and have to wait far too long—to send money home to their families abroad. The current system is failing them. The financial industry is stagnant and there is no digital financial architecture to support the innovation we need. I believe this problem can be solved, and Libra can help.

The idea behind Libra is that sending money should be as easy and secure as sending a text message. Libra will be a global payments system, fully backed by a reserve of cash and other highly liquid assets.

I believe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get built, but I understand we're not the ideal messenger right now. We've faced a lot of issues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m sure people wish it was anyone but Facebook putting this idea forward.

But there's a reason we care about this. Facebook is about putting power in people's hands. Our services give people voice to express what matters to them, and to build businesses that create opportunity. Giving people control of their money is important too. A simple, secure, and stable way to transfer money is empowering. Over the long term, if it means more people transact on our platforms, that would be good for our business. But even if it doesn't, it could help people everywhere.

[사진=Bloomberg Crypto twitter]

- 규제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미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발 중인 리브라의 출시를 보류**
- 리브라는 **하나의 주권 화폐를 만드는 시도가 아니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또 다른 송금 방식이라고 강조**
- "암호화폐를 사용한 이유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것으로,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선택이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 **캘리브라 디지털 지갑은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가 원할 때 얼마든지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 확보용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

세계 각국의 대응

- 유럽은 `e-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할 것 (올라프 솔츠, 독일 재무장관)
-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중 (디지털 위안화)
- **“국제통화기금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야니스 바라우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
- **“페이스북 리브라 출현을 통해 전 세계 은행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스웨덴 중앙은행도 디지털 통화인 ‘e-코로나’ 발행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
(스테판 잉베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리브라에 대한 향후 전망

- "리브라는 결제산업을 재편하고 전 세계에서 탈달러화를 촉진할 것" (자오창핑 CEO, 바이낸스)
- "리브라는 미국 이용자들을 위한 진일보한 기술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취약계층과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리브라)을 외면하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 "암호 화폐가 증권인지 판단하는 증권법은 1933년 제정됐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커녕 미국 농촌의 90%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법이다. 이러한 법으로 암호 화폐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 라운즈, 미국 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리브라에 대한 향후 전망

- 한국에서도 22일 리브라 관련 블록체인 법학회 컨퍼런스 개최
- “리브라가 내년까지 상용화되진 않겠지만,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 이름이 꼭 ‘리브라’ 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이정엽, 한국 블록체인 법학회장)
- “2020년보다 늦을 수야 있겠지만, 분명히 시작은 하게 될 것이다. 리브라 백서를 살펴보면 **거버넌스 안에 정부, 시민, 개인을 끌어 담으려는 흔적이 녹아있다**. 국가와 절묘하게 타협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어서 **통화정책이나 규제 문제의 경우 유연하게 수용하게 될 것**” (박종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주커버그는 미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출시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하였지만,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출시 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이라 예상

Reference

-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0141559261>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2630/>
- <http://coinreaders.com/5755>
- <http://www.fnnews.com/news/201910201733350233>
- <https://decenter.kr/NewsView/1VPMUIS2DT>
-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3095332>